

〈제 557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5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6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5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이날 광주은행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옷장과 사물함이 부족해 정리정돈이

어렵고, 학습공간에 습기가 많아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해 사물함과 옷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신발장과 제습기를 선물했다.

## 금호타이어

### ◆ '청년일자리 페스티벌' 참가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은 지난 26일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광산구 청년일자리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호타이어는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타이어 제조 직무 설명,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전수 등 실제 합격을 위한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최근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행사에 동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 〈중장년센터 제18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0시간에 걸쳐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열림실에서 제18회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센터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생애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4가지 모듈을 활용한 집단상담 교육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구직자 19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3차 운영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24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현 상임부회장 등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는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방안 논의 및 구인 정보를 공유했다.



### 〈광산구 노사민정 워크숍 참석〉

#### - 운영현 상임부회장 토론자로 참여

지난 9월 25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광산구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관하고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한 워크숍 행사 중 노사민정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에서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늘려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전국경총 부회장단 회의 참석〉

지난 9월 26~27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경총 부회장단 회의에 본회 운영현 상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경총과 전국경총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후원〉

지난 9월 28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본회 최상준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역 노사장이 협력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사무국 일지(9. 23 ~ 9. 28)

9. 23 (월)	●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책임자 회의 참석	9. 26 (목)	● 전국경총 부회장단 회의 참석
9. 24 (화)	● 광주경제포럼 참석 ● 중장년센터 제18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자산맛 일자리사업 3차 운영위원회 개최	9. 27 (금)	● 제1460회 금요조찬포럼 ● 청년일경험드림 6기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9. 25 (수)	● 중장년센터 사회적기업페스티벌 참석 ● 광산구 노사민정 워크숍 참석	9. 28 (토)	●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 〈제1460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9월27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초청 <소설 속 문화예술과 안전>이란 주제로 제146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사회적 이슈를 소설스토리에 담아 소설을 펴냈다.

이 소설은 파리 주재원 남성과 서울의 가정주부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 문화예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소울메이트로 발전한다는 줄거리다.

두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화가 고희와 이중섭, 클로드 모네, 샹송가수 에디트 피아프, 작가 빅토르 위고와 에밀 졸라, 조각가 로댕 등 문화예술가 등의 삶과 작품에 대한 정서를 교환한다.

‘오프라인상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두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광주비엔날레와 부산국제영화제, 강원도 이효석 문학관, 제주도 올레길도 동행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주인공에게 ‘수상한 이메일’이 날아들며 극적인 효과를 높인다.

정 부시장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파리에서 온 이메일’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훈훈한 감동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실시한 특강에서 재난안전 관련 메시지를 소설 스토리에 얹어서 전달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 1. 노사 동향

###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에 주력 (9.19)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9. 19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 회의에서는 50~299인 사업장(1,300개소)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19. 5 기준)

•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법 시행과 관련해 여전히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안된 기업이 약 40%로 집계

※ 주52시간제 법 시행 '준비 중'(31.8%), '준비 못하고 있음'(7.2%)

•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유연근로 요건 완화'(39.9%),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 근로의 예외적 허용'(37.1%)이 가장 높게 조사

○ 한편, 양 노총은 금번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 발표(9. 19)

-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예외인정 등 법 개정을 운운하며 제도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

- 민주노총은 "금번 발표는 국회에 탄력근로제 개악 근거를 마련해줬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까지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라고 주장

### ■ 정기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 논의는 11월초 시작될 것으로 전망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9월 ~ 10월末까지는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진행 예정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노동 관련 법안 논의는 국정감사 및 상임위 예산안 심사 이후 본격화 전망

※ 정기국회 주요일정 : ▲대정부질문(9. 26 ~ 10. 1), ▲국정감사(10. 2 ~ 10. 21),  
▲예산안 시정연설(10. 22), ▲상임위별 예산 심사(10월末 ~ 11월初 예상)

- 고용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국무회의 의결 9. 24)
- 환노위는 지난 7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2차례 소위 및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으나 각 당 간 이견 지속

#### [ 참고 ]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노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정의당]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li> <li>▲ [한국당]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단협 유효기간 연장</li> </ul>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당, 바른미래당]인가연장근로사유확대,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 기간 확대</li> <li>▲ [민주당]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li> </ul>
최저임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li> <li>▲ [한국당, 바른미래당]최저임금 구분적용</li> </ul>
기간제·파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정의당]기간제·파견 사용사유 제한</li> <li>▲ [한국당]파업 중 파견 허용</li> </ul>

#### ■ 노동계는 국정감사에서 현안 문제 쟁점화 시도

○ 양 노총은 올해 국정감사(10. 2 ~ 21)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직접고용 문제 등 이슈화 예정

- 총파업의 한국노총은 9. 4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2019 국정감사 한국노총 정책의제 설명회' 개최하고 정책 자료집 전달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ILO핵심협약 비준, ▲타임오프제 현실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제시

- 민주노총은 9. 25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정감사 요구 의제 발표

- 3대 핵심의제로 ▲노동법 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몰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철폐·차별 해소, ▲재벌체제 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선정

#### ■ 민주노총은 11월末 ~ 12월初 총파업 예고 (9.23)

○ 민주노총은 9. 2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법안처리가 집중되는 11월末 ~ 12월初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관련법 개정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직접고용 쟁취를 이슈로 총파업 추진 방침

- 총파업에 앞서 노동기본권 쟁취 집중투쟁(9~10월) → 對국회 총력투쟁(10~11월)  
→ 전국노동자대회(11. 9)를 개최해 투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

-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몰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계획

- 민주노총은 몰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금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한국도로공사 본사(경북 김천) 인근에서 개최했으며,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 2. 판례 동향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대전지법 2019. 8. 28. 선고, 2018구합104220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사업장 내에는 3개의 노조가 존재함.
  - ※ A노조(산별노조 산하 지회), B노조(지역별 노조 산하 지부), C노조(기업단위 노조)
- A·B·C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6. 5. 8. B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함.
  -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7. 7. 1 ~ 2019. 6. 30)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 외에는 종전 협약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단체협약 제13조는 '회사는 노조지부에 사무실 및 필요한 집기, 비품, 통신시설 등 회사시설을 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회사와 B노조는 2017. 12. 19 부속합의서도 작성함.
    - ※ 부속합의서 : 단체협약 제13조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의 사업장이 협소하고, 기존 조합 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부여된 조합 사무실 이외의 노조에게는 회사 외부에 적당한 장소를 조합사무실로 제공한다.
- 2016. 4월경에는 회사 근로자 중 95명이 B노조에, 13명이 A노조에, 7명이 C노조에 가입한 상태였고, 위 합의 당시에는 95명이 B노조에, 15명이 A노조에, 4명이 C노조에 각 가입한 상태였음.
- 회사는 B·C노조에게는 사업장 내 별관 건물 2층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A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함.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이에 A노조는 '단체협약 제13조가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해 A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판정을 받음.

## 2. 판결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사가 A노조에게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A노조를 차별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임.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조 사무실 제공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교섭대표노조인 B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노조 사무실에 관한 규정(단체협약 제13조)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인 A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법이 보호하는 노조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조에도 노조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와 다를 바가 없음.
- 또한 A노조 활동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회사가 조합의 활동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A노조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회사가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장소를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교섭대표노조인 B노조와 A노조보다 구성원이 훨씬 적은 C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A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다만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수 등 노조의 규모, 노조 사무실의 필요성,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면 될 뿐이지 사용자가 모든 노조에 동일한 크기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A노조에게 다른 노조에 제공한 사무실보다 작은 사무실을 제공하여도 무방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들이 있거나 기존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A노조에게만 사업장 밖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됨.

###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교섭대표노조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조에게도 반드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2017두40655)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임.
  - ※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한 경우도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다만, 금번 판결은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 판단한 기존 판례에서 더 나아가 사무실의 접근성 및 위치 등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끝.